

콜럼버스 교구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kc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평일미사 : 매주 금요일 오후 5시30분
- * 성시간 : 매월 첫째 금요일 미사 후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본당 소식

◆ 오늘은 본당 주보성인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이며 본당의 날입니다. 김대건 신부님께서 지니셨던 굳은 믿음과 순교의 영성을 본받아 우리 공동체가 더욱 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 미사후 친교실에서 간단한 점심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예비자 교리 개강 안내**
• 교리기간: 7/3-8/15 (매주 금, 토 저녁 6:30)
• 신청방법: 주일 미사 후 신청서 배부
• 담당자: 이호근 라파엘 형제님

◆ **첫영성체 가정 교리 안내**
• 교리기간: 7/4-8/22
• 첫영성체: 8/23 일 주일 미사 중

◆ **꾸리아 월례 회합**
• 일시: 오늘 미사 후
• 장소: Parish Center

◆ **김제준 구역 모임**
• 일시: 7월 11 일(토) 저녁 7시
• 장소: 구역장 자택

- ◆ **이호영 구역 모임**
 - 일시: 7월 11 일(토) 저녁 7시
 - 장소: 박알비노 형제님 댁 (614)873-2018
8190 Shannon Glen Blvd. Dublin, OH
- ◆ 매월 둘째 수요일, 본당 **빈첸시오회**에서 홀리스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 **친교 준비 봉사자**
 - 7월 5일: 성모회, 김소연 7월 12일: 최창배
- ◆ 7월 **친교 후 정리 봉사**: 황석두 구역
- ◆ **2009년 BAA** (Bishop's Annual Appeal)에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BAA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5,700이며, 지난주까지 모금액은 \$2,150입니다.
 - 참여하실 분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성모회에서 롯데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판매금액의 10%가 성모회 기금으로 모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504.00
교 무 금	\$5,565.00
BAA	\$1,000.00

- **교무금**: 문승태 김수미 박석현 최영찬
- **BAA**: 익명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Korean Catholic Community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July 5, 2009



< 성 김대건 안드레아 흉상 >

이춘만(1941-), 브론즈, 명동대성당, 서울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역대기 하권 24,18-22

“너희는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즈카르야를 살해하였다.”

화답송



제 2 독서 로마서 5,1-5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10,17-22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 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 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5,423단 33명
이호영	365단 2명	21,509단 146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7,460단 78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기타	단 명	130단 3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365단 2명	2/22/04 -6/28/09 (279주)

☞ 총누계: 215,997단 12,780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7월5일	7월12일
해설자	안유신	서경환
독서/봉헌	이호영 구역	황석두 구역
보편지향 기도	평화의 모후	상지의 옥좌

오늘의 성가

- ♪ 입당: 287
- ♪ 성체: 499 497
- ♪ 봉헌: 212
- ♪ 파견: 286

생명의 말씀

매일 순교의 삶을 사는 신앙인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학교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이다.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는(1821-1846) 하느님을 '임자'로 불렀다. 그는 하느님은 세상과 인간의 임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면 세상에 난 보람이 없다고 신자들에게 가르쳤다.

1821년 충청도 솔미에서 태어난 성인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신앙심과 총명함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는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최양업, 최방제와 함께 1836년 12월 마카오로 떠난다. 인고의 세월을 잘 견디고 1845년 8월 17일 상해에서 사제품에 오른다. 김대건 신부는 그해 10월 12일 귀국하여 용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1846년 6월 5일 관헌들에게 체포되었다. 40여 차례의 혹독한 문초를 받고 9월 15일 반역죄로 사형이 선고되어 다음날인 16일 새남터에서 순교했다. 그의 나이 26세였다.

그는 사목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실천했고 죽음으로 자신을 완전하게 봉헌했다. 김대건 신부는 사형 집행 전 큰 소리로 마지막 설교를 했다. “나의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나는 천주를 위해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은 후 행복을 찾으려면 천주를 믿으시오.” 설교가 끝난 후 관리들은 김 신부의 웃웃을 벗기고 두 귀에 화살을 꿰고 얼굴에는 물을 뿌리고 흰 회를 발랐다. 무릎을 꿇리고 밧줄 한 가닥으로 머리칼을 동여매고 머리를 하늘로 향하게 했다. 그때 김대건 신부는 태연하게 “자, 이렇게 하면 나의 목을 쉽게 자르겠느냐?”라고 했다고 한다.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던 기백과 용기는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마태 10,22)라고 하신다.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부모나 형제로부터 배척을 받고,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반대와 박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신 것이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박해와 고통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면 왜 신앙인은 박해를 당하는가? 세속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는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다. 따라서 죄와 어둠의 세력은 빛을 거부하고 두려워한다. 어둠의 행위가 빛속에서 날났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세상 속에서 신앙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 자체가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순교는 본래 증거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길이며 동시에 순교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오늘날에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옛날처럼 순교를 당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순교의 삶이 되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훌륭한 순교이다. 어쩌면 현대의 삶 속에서 충실하게 증거의 삶을 사는 것이 과거의 순교 못지않게 어렵고 힘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순교 성인들의 후예답게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 신앙의 빛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참 신앙인이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해야 하겠다.

“순교자 김대건 사제와 한국의 순교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